

# 2010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언어 영역 •

### 정답

1	④	2	②	3	①	4	②	5	⑤
6	③	7	②	8	⑤	9	④	10	③
11	①	12	⑤	13	③	14	⑤	15	③
16	⑤	17	③	18	⑤	19	②	20	③
21	④	22	②	23	②	24	①	25	③
26	③	27	①	28	②	29	②	30	④
31	③	32	②	33	⑤	34	⑤	35	①
36	①	37	③	38	④	39	④	40	①
41	③	42	②	43	②	44	⑤	45	⑤
46	⑤	47	①	48	④	49	④	50	③

### 해설

<1번> 이제 라디오 교양 프로그램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밝고 경쾌한 여자 목소리)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통해 삶의 교훈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퇴계 이황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50세 이후 고향의 한적한 시냇가에 도산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학덕을 사모하여 모여드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성리학의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였습니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대제학, 예조판서 등 높은 관직을 제수하여 계속 조정으로 불러들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거들 상소를 올려 벼슬을 사양하였습니다. 마지못해 나갔다가도 곧 사퇴하여 귀향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퇴계 선생은 벼슬에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퇴계(중후한 남성 목소리) : “이리석음을 숨기고 자리만 차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병든 몸이 하는 일 없이 녹만 축내는 것은 부당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벼슬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신이 맡을 일이 아닌데도 물러서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

1. [출제의도] 이야기의 교훈성 파악하기

퇴계 선생은 이리석거나 병들었을 때 벼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지 말아야 할 때 벼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2번> 다음은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딸 : (다른 방에서) 윤수야, 음악 소리 좀 낮춰!  
아들 : 에이, 맨날 저 소리아. 아, 참. 나에게만 들리게 할 순 없을까?

엄마 : 누나는 내일 시험이라 그러니 좀 봐 줘라. 그리고 옆 사람에게는 안 들리고 자기에게만 들리는 스피커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살 수 있지 않겠니?

아들 : 정말이에요? 엄마. 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엄마 : 그건 말이야, 소리의 간섭현상을 이용한 거란다. 소리가 물결처럼 움직이는 파동이라는 건 알지? 2개 이상의 파동이 섞이면 간섭현상이 일어난단다.

아들 : 소리가 간섭한다구요?

엄마 : 자, 그래프로 그려 테니 잘 봐. 파동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잖니? 이런 위치에 따른 상태를 위상이라고 해. 청취 영역에선 음악과 위상이 같은 소리를 더해주면 음악이 더

커진단다.

아들 : 아, 그러니까 소리를 보태서 음악을 더 크게 한다는 거네요.

엄마 : 그렇지. 그리고 누나에게는 음악이 안 들려야 하니까 그쪽으로는 위상이 정반대인 소리를 내주면 된단다. 그럼 소리의 간섭현상이 일어나서 음악이 들리지 않지.

아들 : 아, 알겠어요. 그럼 누나에게 음악이 안 들리게 하려면 위상이 정반대인 소리를 내야겠네요.

2. [출제의도] 들은 내용을 적용하기

누나에게 음악이 들리지 않게 하려면 음악과 위상이 정반대인 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보기의 파동과는 위상이 정반대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3번> 다음은 ‘천일염 생산 과정’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천일염은 염전에서 약 3주 동안 바닷물을 서서히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천일염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수문을 열어 저수지에 가둬둔 바닷물을 제1증발지에 채우게 되는데, 이 때 물의 염도는 1~3%입니다.

제1증발지에서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바닷물의 염도를 6~8%까지 올리는 데 보통 1주일이 걸립니다. 농축된 바닷물을 다시 제2증발지로 옮겨 염도가 22~25%가 될 때까지 증발시키는 데 1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결정지로 옮기는데, 증발지와 결정지 사이에는 3cm의 낙차가 있어 물꼬를 열면 소금물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결정지에서는 염도가 27%가 될 때까지 증발시키는 데, 햇빛·바람·물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소금 결정이 생깁니다. 이때 개펄 속 미생물들이 뱉어 놓은 미네랄 성분이 소금 결정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2~4mm로 쌓이면 일명 ‘대패’로 소금을 긁어모아 여러 개의 무더기로 만들었다가 물이 빠지면 창고로 운반해 6개월 정도 보관하며 짜고 쓴 간수를 뺐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질 좋은 천일염이 만들어집니다.

3. [출제의도] 천일염 생산 과정을 이해하기

마지막 부분에 결정지에서 소금 결정이 만들어질 때 미생물이 뱉어놓은 미네랄이 결정 속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으나 이것을 통해 천일염의 구성 성분 비율을 알 수는 없다.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천일염을 만드는 데 3주일 걸린다는 사실이나 각 단계별 염도가 다르다는 것, 햇빛·바람·물의 조건이 맞아야 결정이 생긴다는 것, 증발지와 결정지 사이에는 3cm 정도의 낙차가 있어서 소금물이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사실이 제시되어 있다.

<4, 5번> 다음은 학교에서 초청한 전문가와의 대담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시그널 음악)

사회자(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 병원 이민수 박사님과 ‘편두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편두통이 무엇입니까?

이 박사(40대 남자 의사) : 예, 편두통은 한 쪽 머리만 심하게 아픈 증상을 말합니다. 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갑자기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회자 : 그러면 편두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박사 : 유감스럽게도, 편두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의학적인 여러 가설이나 이론을 통해서 편두통의 원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편두통의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원인은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떤 경우에 편두통이 생기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이 박사 : 예, 편두통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

족, 격렬한 운동이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밝은 빛이나 날씨의 변화, 높은 장소 때문에 편두통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요.

사회자 : 편두통이 생기는 이유가 참 다양하군요. 그럼 편두통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박사 : 편두통 환자 중에 약 80%는 그 고통 때문에 일상 생활을 하는 데도 많은 지장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예방을 잘 해야 합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박사님, 편두통을 잘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박사 : 먼저, 일상 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 조절이나 운동 치료법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편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잘 파악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회자 : 박사님, 학생들 중에 두통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잠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은 하세요.

학생(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 박사님, 저는 시험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머리가 많이 아픉니다. 이것도 편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박사 : 자세한 건 진단해 보아야 알겠지만, 아마도 그건 ‘긴장성 두통’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두통이지요. 편두통과는 조금 다르지만 스트레스나 피로, 수면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학생 :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튀긴 음식을 먹었다가 머리가 몹시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까. 음식 때문에도 편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 박사 : 그럼요. 튀긴 지방질 음식은 물론이고 적포도주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치즈, 감귤류 등도 편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예~, 그런 음식들이 편두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 [출제의도] 대담의 내용 중 틀린 것을 찾기

편두통 환자 중에 80%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5. [출제의도]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을 찾기

대담을 들어보면 사회자가 화제를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6.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에 의한 주제 연상하기

살바는 씨름을 시작할 때 서로 잡아야 한다. 이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따라서 ‘살바를 잡아야 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호 협력하는 삶’을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나)의 두 자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학습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임을 알 수 있다. ‘문화 공간에 대한 지원의 부족’은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나)의 두 자료를 통해 공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8. [출제의도] 개요 작성하기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글의 통일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을 수정하기 위해 제시한 ‘관광 산업의 재정 지원 확보’는 ‘관광 홍보의 부족’이라는 항목의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④의 ‘호위병처럼 늘어선 삼나무, 양탄자처럼 펼쳐진 녹차밭’에 대구와 직유가 쓰였다. 또 주차장과 가

까워 편하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글쓴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10. [출제의도] 글을 읽고 고쳐 쓰기

㉔의 앞문장과 뒷문장은 대등한 관계이다. 그러므로 인과관계 접속어인 '그래서'보다는 '그리고'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11.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후련하다'는 '답답하거나 갑갑하여 언짢던 것이 풀려 마음이 시원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12. [출제의도] 'ㅂ'으로 끝나는 용언의 활용 이해하기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용언의 활용에서, 모음 어미 '아/어'가 붙어 활용할 때에 어간의 'ㅂ'이 '오/우'로 바뀔 때도 있고, 바뀌지 않을 때도 있다. 또 모음 어미 '아/어'가 붙어 어간의 'ㅂ'이 '오/우'로 바뀔 때도 어간이 1음절이고 '오'가 들어있으면, 'ㅂ'이 '오'로 바뀌지만, 그 외의 경우는 'ㅂ'이 '우'로 바뀐다. 그런데 ㉔의 '추워'는 어간은 1음절이지만 '오'가 없으므로 ⑥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ㄷ은 어간이 1음절이고 어간에 '오'가 들어 있으므로 어간의 'ㅂ'이 '오'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ㄹ은 어간이 2음절이므로 그 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ㅂ'이 '우'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지문 해제] 13~16

(가) 박목월, 「가정」

어머니가 계시는 집의 풍경과 아늑함을 묘사한 시이다. 삶의 편안함을 어머니와 연관시켜 보여준 시이며, 특히 시적 공간을 통해 시의 주제를 드러내는 독특한 작품이다.

(나) 박재삼, 「추억에서」

어머니의 삶과 애환을 회고하면서 고달픈 어린 시절을 읊고 있는 박재삼의 대표작이다.

(다) 김광규, 「영산(靈山)」

어린 시절 고향에 있었다는 신비로운 산, 영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이다. 시적 화자의 영산에 대한 확인을 통해 삶의 진실과 현실에 차이가 있음을 깨닫는다는 작품이다.

13. [출제의도] 시의 구조적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겪은 삶의 애환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여 화자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 (다) 역시 어린 시절 고향에 있었다는 '영산'을 지금 떠올리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가)의 집은 특정 지역으로 보기 어렵고 (나)와 (다)는 구체적인 묘사와 현장감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출제의도] 시적 공간의 이해와 감상하기

㉔의 '차옥차옥 쟁겨진 내의'는 집안의 내력보다 어머니의 정갈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15. [출제의도] 두 작품의 시어 이해와 감상하기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는 '말없이 반짝이고 글썽이던'이라고 하였으므로 어머니의 '눈물'을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진주 장터에서 다 팔지 못한 고기 몇 마리를 통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한을 알 수 있다. ②의 '울엄매야 울엄매'라는 반복을 통하여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16. [출제의도] 시의 내용 이해하기

마지막 연의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영산이 불현

듯 보고 싶어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갔더니 이상하게도 영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를 볼 때 영산이 화자에게 낯익은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지문 해제] 17~19

출전 : 전중환, 「오래된 연장통」

이 글은 '조망과 피신' 이론을 설명한 글이다. '조망과 피신' 이론은 인간이 진화를 해 오면서 어떤 자연환경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선호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조망과 피신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조망과 피신이 동시에 제공되는 환경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자연 환경을 선택하도록 진화해 온 때문이다.

1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 확인하기

'조망과 피신'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조망과 피신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을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조망보다 안락함을 우선한다는 것은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18. [출제의도]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의 지도를 보면 등 뒤가 산으로 가려 있고, 앞쪽은 강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지문에서는 어떤 공간의 한복판보다는 언저리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므로 한복판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지문 둘째 문단에서 장애물에 가리지 않는 열린 시야(앞쪽은 강이 있어)는 물이나 음식물 같은 자원을 찾는 데 유리하다고 하였으므로 ③은 맞는 말이다.

19.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다섯 번째 단락에서 인간이 진화의 결과로 인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공간을 아름답다고 인식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지문 해제] 20~23

출전 : 김창호 위음,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가」

이 글은 사실과 가치가 분명히 구분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힌 글이다.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주관적 평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사실과 가치는 확연히 구분된다. 가치를 사실로써 설명하려고 한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가치를 사실로 환원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직관론자들은 가치는 경험적 사실에 의해 정의될 수 없다는 견해를 펼치면서 가치를 사실로 환원시키려는 자연주의를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치를 중요시 하는 철학자들은 사실이 엄격한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실제 인간이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는 많은 경우 사실은 가치의 개입을 전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 [출제의도] 핵심 논제 파악하기

첫째 단락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과 가치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는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1. 내용 파악 및 적용하기

둘째 단락에서, 사실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은 사실을 가치로써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사실로써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은 첫째 단락, ②는 둘째 단락 중간, ③은 셋째 단락 중간, ⑤는 넷째 단락 끝부분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보조사의 쓰임 이해하기

㉑의 '만'은 '오로지, 오직, 단지'의 의미로 쓰인 보조사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은 '~에 비하여'의 의미로, ③은 '반드시, 늘'의 의미로, ④는 '마는'의 의미로, ⑤는 '행위나 상태가 지속됨'의 의미로 쓰였다.

23. [출제의도] 내용의 근거 찾아내기

마지막 단락의 첫 부분과 끝부분에서, '사실과 가치를 판단할 때,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실제의 지적 활동에서는 서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 '사실과 가치를 판단할 때, 논리적으로는 구분되는 별개의 영역이지만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는 두 영역이 서로 맞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지문 해제] 24~27

출전 : 작자 미상, 「옥단춘전」

이 소설은 평양 기생 옥단춘의 순정과 절의, 그리고 이혈룡과 김진희라는 친구 사이의 그릇된 우정 문제를 다루면서 고난에 찬 주인공이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옥단춘전」은 평양 감사가 된 친구에게 버림받은 이혈룡이 기생인 옥단춘의 도움으로 여사가 되어 배신한 친구를 징치하고 옥단춘과 사랑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24. [출제의도] 고소설의 특징 및 갈등 파악하기

일반적으로 고소설의 문제 해결 방식은 비현실적인데 반하여 이 작품은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옥단춘과 이혈룡 사이의 관계를 세속적인 애정 이상의 순정으로 그려 낭만적이고 이상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진희의 친구에 대한 배신은 시종 철저하므로 악인의 전형으로서 성격 창조에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주어진 글에서는 이혈룡과 김진희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인물의 대화 속에 과거 이야기가 언급될 뿐으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역사적 사실과도 무관하므로 ④도 적절하지 않다.

25. [출제의도] 작품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평양감사인 김진희는 친구인 이혈룡을 강물 한가운데 던져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강물'은 배신과 죽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6. [출제의도] 「만덕전」과 작품 비교를 통한 인물 성격 파악하기

지문과 <보기>를 통해 볼 때 옥단춘과 만덕이 기지를 발휘하여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27.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와 관련된 한자성어 이해하기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려면 무슨 일을 안 당하리 이까'라는 말을 통하여 볼 때 인생은 고통화복의 변화가 많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의 '세옹지마(塞翁之馬)'와 연결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④는 한바탕의 봄 꿈이란 뜻으로 덧없는 부귀영화를, ⑤는 비단옷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진다는 의미이다.

[지문 해제] 28~31

출전 : Mankiw, 김경환 외 번역, 「맨큐의 경제학」

이 글은 기회비용의 대립 용어인 매몰비용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매몰비용의 개념을 밝힌 뒤 기업과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특히 매몰비용을 의사결정과정에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28. [출제의도] 문단의 역할 및 특징 파악하기

(나)는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29. [출제의도] 내용 파악하기

항공사 경영진은 매몰비용에 집착하지 않고 총수입이 기회비용을 넘으면 영업을 계속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30. [출제의도] 내용 적용하기

만족도가 이미 100%이므로 음식을 더 먹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0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김씨가 '돈을 낸 만큼은 먹어야 하는데.....'라고 하였으므로 ②는 적절하다. 또 배달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한다면 편익이 '-가 될 수도 있으므로 ⑤도 적절하다.

31.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의 '놓다'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다.'는 뜻이다. ㉢의 '배제하다'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지문 해제] 32~35

출전 : 이창준, 「매잡이」

이 소설은 사라져 가는 전통을 고집하다가 죽어가는 매잡이 광 서방의 기이한 삶을 그리고 있는데, 액자 소설의 구성방식을 통하여 그것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가 액자 형식을 택한 것은, 액자 밖의 민태준과 액자 안의 매잡이의 삶이 유사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서술자 '나'는 민태준과 광서방의 삶을 하나의 끈으로 엮어진 유기적 관계로 본다. 민형이 소설을 쓴다고 하면서 한 편도 못 쓰는 것처럼, 광 서방 또한 사냥을 하지 못하는 매잡이다. 그러나 그들은 시류를 따르는, 알뜰한 기술로 돈벌이에 집착하는 세속인이 아니라, 진정한 장인의 세계를 고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그들을 죽게 만든다.

3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이 작품에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논평을 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광 서방이 한 번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이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논평을 통하여 이 작품의 주제인 '끝까지 자기 직업을 고수하는 장인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과거에는 날아간 매를 찾은 사람에게 매주인이 돈을 주고 매를 찾아오는 것이 관례였다. 광 서방은 번개쇠가 도망을 가자 매를 찾기 위해 돈을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그와 가장 친한 서 영감에게 돈을 구하러 갔으나 서 영감은 그 사실을 알고 매잡이를 그 만두게 하려고 돈을 주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 서방은 번개쇠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34. [출제의도] 소설을 시나리오로 바꾸기

서 영감이 단호한 태도를 취해도 광 서방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이에, 광 서방을 설득하기 위해 서 영감은 태도를 바꾸어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서 영감의 목소리가 갑자기 은근해졌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⑤의 서 영감의 태도가 단호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부분의 음악도 부드러운 음악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35. [출제의도] 감상하기

주어진 조건에 의해 감상하는 문제이다. <보기>

는 광 서방이 산업화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광 서방은 세상에 대한 원망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지문 해제] 36~38

출전 : 이재인, 「건축 속 과학 이야기」

엘리베이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다.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 엘리베이터의 구조, 엘리베이터 박스와 평형추, 그 사이에 작용하는 장력, 엘리베이터 전동기의 힘, 역회전 방지 장치를 이용한 엘리베이터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법 파악하기

셋째 단락의 앞부분에서 장력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줄다리기와 자동차 안전벨트와 같은 친숙한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37.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지문의 단락별 중심 내용은 도르래의 종류, 엘리베이터의 구조, 엘리베이터의 작동 역학, 엘리베이터의 추락 방지 장치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38. [출제의도] 핵심 정보 이해하기

지문과 <보기>에 제시된 그림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박스가 '평형추'보다 가벼워야 추락 방지가 쉽다는 내용을 판단하거나 추론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지문 해제] 39~42

출전 : 왕문용, 「국어와 의사소통」

이 글은 화용론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론언어학과는 달리 화용론이 언어 연구와 의사소통에 필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글이다. 구체적으로 이론문법에서는 올바른 문장이 되지만, 화용론적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장, 그 반대로 화용론적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이론문법에서는 올바른 문장이라 할 수 없는 문장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9.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이 글은 실질적인 언어 사용 상황을 중시하는 화용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론문법에서 올바른 문장도 화용적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이론문법에서 비논리적인 문장도 화용론적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과 무관한 이론문법에서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내용을 설명한 부분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40. [출제의도] 언어 상황 이해하기

문맥을 보면 ㉠은 '문법에는 맞지만 특정한 화용적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4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의 인물들은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로 인한 의미 전달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어머니'와 '철수'는 '영회가 내일 시험을 친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①),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며(②), "전 모래예요."라는 철수의 발화는 문법적으로는 올바르지 않고(④), "넌 내일 시험 아니니?"라는 어머니의 말은 비문법적이긴 하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⑤),

42.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의 '고려하다'는 '헤아리다'의 의미로 쓰였다. 따

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은 '판단하다', ③과 ⑤는 '기억하다', ④는 '관심을 갖다'의 의미이다.

[지문 해제] 43~47

출전 : (가) 정철, 「사미인곡」, (나) 윤선도, 「어부사시사」, (다) 신석정, 「뗏」

(가) 이 작품은 송강 정철이 조정에서 물러나 전남 창평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별한 여인이 입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에 빗대어 읊은 가사이다.

(나) 이 작품은 윤선도가 지은 연시조로 보길도(甫吉島)를 배경으로 춘하추동에 따라 각 10수씩, 총 40수로 되어 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다) 이 작품은 '부채'라는 소재를 통해 진정한 선비의 멋을 표현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나)에는 화자가 자연에서 누리는 어부 생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화자가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부분은 없다. ③에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가), (나) 모두 거리가 멀다. ④에서 자연에 동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나)는 가능하나 (다)와는 거리가 멀다. ⑤에서 과거의 삶에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은 (가)는 해당하나, (나), (다)와는 거리가 멀다.

44.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의 조막집은 화자가 자연에서 기거하는 곳을 의미한다. 조막집과 대조되는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에서 '매화'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표현하고 있고, ㉡에서 '꽃, 나무'의 '녹음이 질다'는 표현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에서 '흥'을 통해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을, ㉣은 자연의 풍경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외재적 관점에서 작품 감상하기

「사미인곡」은 연군의 정을 드러낸 작품이다. '나인가 반기실가'는 임금이 자신의 충성심을 알아줄까 하는 의구심을 표현한 것이지만 임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46.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의 '부들부채'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화자의 유희자적인 삶을 의미하고, ㉡의 '부채'는 탐관오리가 득실거리는 풍토에서 백성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47. [출제의도] 구상 내용 파악하기

예화는 '중국 동진조의 명신 사래'에서, 설의적 표현은 마지막 부분의 '-있으랴?'를 통해, 미풍양속 소개는 '조선조에서 부채를 주고 받는 것'을 통해, 대조적인 소재는 '부채와 선풍기(에어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지문 해제] 48~50

출전 : 한정식, 「프레임의 의미 창조」

이 글은 사진의 프레임에 대한 것이다. 사진의 서터와 시간과 공간의 결정, 파인더와 프레임의 차이점, 프레임링을 통한 사진 작가의 의미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48. [출제의도] 중심 내용과 서술 방법 파악하기

파인더와 프레임의 구조와 기능을 비교하여 설명

하고 있지만 서로 대조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49. [출제의도] 중심 용어의 의미 파악하기**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프레임은 단순한 테두리가 아니라 작가가 본 세계의 테두리라는 점에서 파인더의 단순한 물리적 틀을 넘어선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50. [출제의도] 핵심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정보에 적용하기**

대상이 곧 프레임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기>에 같은 대상이라도 작가에 의해 변용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같으면 예술 장르가 다르더라도 작품의 의미가 같아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세상을 끌어내어'는 화가가 선택한 세계이므로 ①은 적절하다. 시인은 다양한 세계 중에 화가의 그림을 대상으로 삼아 시를 창작했으므로 ②는 적절하다. 화가는 '납작하게 뻗어있다'는 것처럼 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시인 또한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사진가의 프레임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다.